

## V. 참고자료

본 참고자료의 내용은 한우농가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발췌하여 실고 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참고 하시면 한다.

### □ 쇠고기의 생산 동향 및 전망

#### 가. 사육환경

미국의 육류 생산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산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곡물 및 건초류의 작황을 이해해야 한다. 1997년 이후 미국의 곡물 생산 및 건초류의 작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여 비교적 낮은 생산비용을 유지할수 있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생산량의 증가를 보여왔다. 지난 동절기의 건조기후로 사료 및 건초 등의 생산비용이 상승되는 것을 우려하여 팍커들의 입식이 일부 증가세를 보였으나 금년 3월부터는 기후 상태가 다시 양호해지고 지난 몇 년간 작황 실적의 호전으로 인한 재고량 축적 등으로 향후 사료 및 곡물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나. 비육우의 공급 및 재고 상황

2000년 1월 현재 미국의 소 사육두수는 약 9천8백만두로 전년대비로는 약1%, 90년대에 최고치를 기록한 96년 대비로는 약 5.3%가 감소한 상태이다. 과거 수년간의 지속적인 암소도축에도 불구하고 전체 암소의 재고량은 매우 미미하게 감소한 상태이며 비육우의 공급은 지난 동절기 기후의 영향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다. 쇠고기 생산량 및 가격전망

작년 말 미국 농무성의 보고서에서는 2000년 초부터 쇠고기 생산량의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지난 겨울 및 올 초의 건조기후의 영향으로 사육장에 입식되는 두수가 증가되었고, 미국 내 고급육(Choice 등급이상)의 수요증가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체중량의 증가로 금년 여름까지는 쇠고기의 생산량이 전년 수준내지는 그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감산이 시작되어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비육우 및 쇠고기의 가격은 점차 상승세를 보일 것이며 올해 초의 평균 비육우의 가격은 U\$67~69/cwt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입 전망

작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은 98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는데 멕시코가 약 11%로 한국은 거의 두 배 가까운 물량이 수출되었다. 한국으로의 물량증가 원인으로서는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개선, 축산발전기금의 유명무실화, 개방을 앞둔 축산농가의 불안심리 등으로 국내산 한우의 보유두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는 데에 있다고 보여진다.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약 1.5%가 감소되었고 금년에도 엔화의 약세가 예상되어 수출량은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0년 전체 미국의 쇠고기 수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수입하는 쇠고기(원료육, 햄버거 패티 등의 저가육) 물량은 약5% 내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남미의 수출국으로부터의 물량이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내의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각국에 대한 수출가격도 현재까지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이후 생산량의 감소가 개시되도 수출가격이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 한육우 사육 통계조사 결과

본 통계자료는 2000.3.1~3.15(15일간)까지 표본조사와 전수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표본오차 2~5% 이내로 계산된 수치입니다.(농림부 조사자료)

1. 한육우 사육현황

(단위: 천두, 천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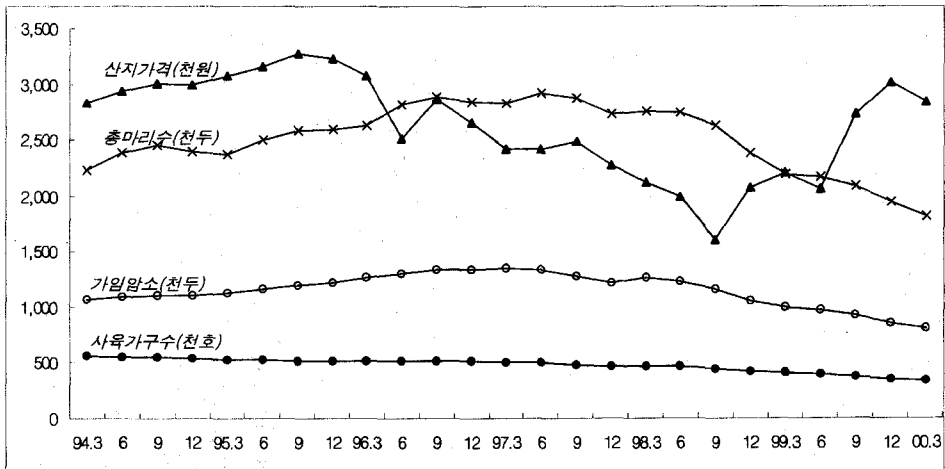
	'97.12	'98.12	'99				2000.3	증△감		
			3	6	9	12		전분기	전반기	
<b>총 마리수</b>	2,735	2,383	2,198	2,167	2,094	1,952	1,819	△133 (△6.8)	△379 (△17.2)	
- 가임암소	1,219	1,061	1,000	975	929	854	809	△45 (△5.3)	△191 (△19.1)	
연령별	1세미만	1,102	895	812	801	758	717	646	△71 (△9.9)	△166 (△20.4)
	1~2세	535	556	503	512	520	489	461	△28 (△5.7)	△42 (△8.3)
	2세이상	1,098	932	883	854	816	746	712	△34 (△4.6)	△171 (△19.4)
규모별	50두미만	2,377	1,936	1,798	1,737	1,621	1,503	1,408	△95 (△6.3)	△390 (△21.7)
	50~100	201	254	232	236	254	233	219	△14 (△6.0)	△13 (△5.6)
	100두이상	157	193	168	194	219	216	192	△24 (△11.1)	24 (14.3)
<b>사육 가구수</b>	465	427	413	399	372	350	336	△14 (△4.0)	△77 (△18.6)	
규모별	50두미만	461	422	408	394	367	345	332	△13 (△3.8)	△76 (△18.6)
	50~100	3.2	3.9	3.5	3.6	3.9	3.5	3.3	△0.2 (△5.7)	△0.2 (△5.7)
	100두이상	0.9	1.1	1.0	1.2	1.3	1.3	1.1	△0.2 (△15.4)	0.1 (10.0)
<b>가구당마리수 (두/호)</b>	5.9	5.6	5.3	5.4	5.6	5.6	5.6	0.0 (0.0)	0.0 (0.0)	

- 총마리수 : 1,819천두 ⇒ 3개월전보다 133천두(△6.8%) 감소  
                   전년동기보다 379천두(△17.2%) 감소
- 가임암소 : 809천두 ⇒ 3개월전보다 45천두(△5.3%) 감소  
                   전년동기보다 191천두(△19.1%) 감소

**감소요인**

- 수입개방시기가 다가오고 '99. 12월이후 소값이 하락함에 따라 농가의 사육심리가 위축되어 사육규모를 축소하거나 전·폐업하는 농가가 지속되어 전체 마리수 감소
  - 큰수소값(천원/500kg) : ('99.3) 2,152 → (12) 3,098 → ('00.1) 2,977 → (2) 2,845  
                                   ('99. 12대비 △8.2%)
- 영세한 규모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육농가에서도 감소
  - 50두미만 : ('99.3) 1,798천두 → (12) 1,503 → ('00.3)1,408
  - 100두이상 : ('99.3) 168천두 → (12) 216 → ('00.3) 192
- 사육가구수 : 336천호 ⇒ 3개월전보다 14천호(△4.0%) 감소  
                   전년동기보다 77천호(△18.6%) 감소
- 100두이상 사육규모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사육가구수 감소추세
  - 100두미만 : ('99.3) 411.8천호 → (12) 348.5 → ('00.3) 334.8
  - 100두이상 : ('99.3) 954호 → (12) 1,268 → ('00.3) 1,089
- 호당마리수 : ('99.3) 5.3두 → (9) 5.6 → (12) 5.6 → ('00.3) 5.6
- 사육마리수와 가구수가 모두 감소하여 호당 마리수는 같은 수준 유지

**한육우 사육동향 변동추이**



□ 사육규모별 마리수 및 가구수

(단위 : 천두, 천가구, %)

	마 리 수					가 구 수					
	계	20두 미만	20~50	50~ 100	100두 이상	계	20두 미만	20~50	50~ 100	100두 이상	
'97. 3	2,827	1,971 (69.7)	604 (21.4)	155 (5.5)	97 (3.4)	509	484 (95.1)	21.6 (4.3)	2.5 (0.5)	0.53 (0.1)	
6	2,927	1,994 (68.1)	643 (22.0)	169 (5.8)	121 (4.1)	501	475 (94.8)	22.7 (4.5)	2.6 (0.5)	0.68 (0.2)	
9	2,880	1,884 (65.4)	644 (22.4)	203 (7.0)	149 (5.2)	482	455 (94.5)	22.4 (4.7)	3.2 (0.6)	0.85 (0.2)	
12	2,735	1,739 (63.6)	638 (23.3)	201 (7.3)	157 (5.8)	465	439 (94.4)	22.0 (4.7)	3.2 (0.7)	0.90 (0.2)	
'98. 3	2,762	1,698 (61.5)	625 (22.6)	272 (9.9)	167 (6.0)	475	447.7 (94.3)	21.6 (4.6)	4.2 (0.9)	1.00 (0.2)	
6	2,750	1,693 (61.6)	617 (22.4)	261 (9.5)	179 (6.5)	466	440.2 (94.4)	21.1 (4.5)	4.0 (0.9)	1.09 (0.2)	
9	2,633	1,588 (60.3)	592 (22.5)	256 (9.7)	197 (7.5)	450	424.0 (94.2)	20.9 (4.7)	3.9 (0.9)	1.18 (0.2)	
12	2,383	1,404 (58.9)	532 (22.3)	254 (10.7)	193 (8.1)	427	403.8 (94.5)	18.2 (4.3)	3.9 (0.9)	1.13 (0.3)	
'99. 3	2,198	1,332 (60.6)	466 (21.2)	232 (10.6)	168 (7.6)	413	392.4 (95.0)	15.9 (3.9)	3.5 (0.8)	0.95 (0.2)	
6	2,167	1,275 (58.8)	462 (21.3)	236 (10.9)	194 (9.0)	399	378.2 (94.8)	15.8 (4.0)	3.6 (0.9)	1.15 (0.3)	
9	2,094	1,175 (56.1)	446 (21.3)	254 (12.1)	219 (10.5)	372	351.9 (94.6)	15.2 (4.1)	3.9 (1.0)	1.05 (0.3)	
12	1,952	1,063 (54.5)	440 (22.5)	233 (11.9)	216 (11.1)	350	330.7 (94.5)	14.7 (4.2)	3.5 (1.0)	1.27 (0.4)	
2000. 3	1,819	1,015 (55.8)	393 (21.6)	219 (12.0)	192 (10.6)	336	318.2 (94.7)	13.3 (4.0)	3.3 (1.0)	1.09 (0.3)	
증 △ 감	전분기	△133 (△6.8)	△48 (△4.5)	△47 (△10.7)	△14 (△6.0)	△24 (△11.1)	△14 (△4.0)	△12.5 (△3.8)	△1.4 (△9.5)	△0.2 (△5.7)	△0.18 (△14.2)
	전년 동기	△379 (△17.2)	△317 (△23.8)	△73 (△15.7)	△13 (△5.6)	24 (14.3)	△77 (△18.6)	△74.2 (△18.9)	△2.6 (△16.4)	△0.2 (△5.7)	0.14 (14.7)

□ 연령별, 성별 마리수

(단위 : 천두, %)

		'97.12	'98.12	'99				2000.3	증△감	
				3	6	9	12		전분기	전년동기
총 마리수		2,735	2,383	2,198	2,167	2,094	1,952	1,819	△133 (△6.8)	△379 (△17.2)
암 컷		1,828	1,603	1,494	1,460	1,390	1,284	1,191	△93 (△7.2)	△303 (△20.3)
(번식우)		(1,782)	(1,533)	(1,438)	(1,398)	(1,326)	(1,218)	(1,142)	△76 (△6.2)	△296 (△20.6)
수 컷		907	780	704	707	704	668	628	△40 (△6.0)	△76 (△10.8)
1세미만	계	1,102	895	812	801	758	717	646	△71 (△9.9)	△166 (△20.4)
	암 컷	471	393	356	346	324	302	262	△40 (△13.2)	△94 (△26.4)
	수 컷	631	502	456	455	434	415	384	△31 (△7.5)	△72 (△15.8)
1~2세	계	535	556	503	512	520	489	461	△28 (△5.7)	△42 (△8.3)
	암 컷	275	296	276	280	272	256	239	△17 (△6.6)	△37 (△13.4)
	수 컷	260	260	227	232	248	233	222	△11 (△4.7)	△5 (△2.2)
2세이상	계	1,098	932	883	854	816	746	712	△34 (△4.6)	△171 (△19.4)
	암 컷	1,082	913	862	834	794	726	690	△36 (△5.0)	△172 (△20.0)
	수 컷	16	19	21	20	22	20	22	2 (10.0)	1 (4.8)

□ 과거 3개월간 변동상황

(단위 : 천두, %)

		'97.12	'98.12	'99				2000.3	증△감	
				3	6	9	12		전분기	전년동기
증가요인	생 산	183	175	186	215	206	156	157	1 (0.6)	△29 (△15.6)
	구 입	301	351	239	264	294	256	185	△71 (△27.7)	△54 (△22.6)
	계	484	526	425	479	500	412	342	△70 (△17.0)	△83 (△19.5)
감소요인	출 하	632	779	565	517	577	528	433	△95 (△18.0)	△132 (△23.4)
	폐 사	4	7	7	5	5	4	6	2 (50.0)	△1 (△14.3)
	계	636	786	572	522	582	532	439	△93 (△17.5)	△133 (△23.3)

## □ 한우개량과 자가인공수정

### 1. 개요

가축의 개량에 있어서 인공수정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우에 있어서는 생산비등을 고려할 때 인공수정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농가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최근의 소값하락 및 구제역 발생등으로 인해 자연교배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한우개량 및 한우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소에게 인공수정을 하는 목적은 근친을 피하고 우수한 능력의 정액을 이용 한우의 능력을 개량 하여 적은 사료로 많은 고기와 육질이 우수한 고기를 생산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자 함인데, 자연교배를 하게되면 송아지 때는 별차이 없지만 점점 커가면서 소가 잘 크지 않게되어 소를 기르는 농가가 손실을 보게되며, 나아가 서로 불신하게 되어 가축시장에서의 거래가 어렵게 된다.

한우의 개량은 같은 사료를 먹고도 육량과 육질이 우수한 한우로 사육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는 인공수정에 의해서 가능하였던 일이다.

농가가 효율적으로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가 인공수정을 함으로써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요즘은 저가의 자가인공수정기가 공급되어 수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정부에서도 자가인공수정기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가에 50%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농가가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가인공수정을 할 수가 있다.

앞으로 한우사육기반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우사육에 있어서는 일관사육체계(분만에서부터 비육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사육방법)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가인공수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자가 인공수정을 함으로써 수정료의 절감효과도 무시할수 없겠지만 그보다 적기에 수정하여 수태율 향상과 번식간격의 단축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우의 번식기간이 평균 21일임을 감안할 때 적기에 수정하여 수태를 시키는 것은 1주기(21일)의 사료비를 절감하여 생산비를 낮추는데 한 몫을 할것이다.

한우1마리의 사료비를 계산해보면 1주기를 놓쳤을 때 추가되는 경비는 농가 스스로 하루 사료 주는 양을 계산해 보면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예) 1주기(21일) × 1두당 1일 사료비

### 2. 번식적령기

일단 암소가 발정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성성숙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여도 좋으나 승가(소가 올라 타는것)를 하거나 허용한다고 해서 성성숙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이와 병행하여 반드시 다음과 같은 외형적 증상이 관찰되어야 한다.

- ① 식욕이 감퇴하고 불안해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 ② 눈에는 활기가 있으며 귀를 자주 흔들며 소리를 지른다.
- ③ 외음부가 붓고 질 점막에서 점액이 나오며 초기에는 점액이 혼탁하고 나중에는 맑고 길게 늘어진다.
- ④ 발정이 끝난 후 미경산우는 80%, 경산우는 50%정도가 피를 흘리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미 발정이 2~3일전에 왔음을 의미한다.

소의 발정주기는 일반적으로 21일이나 개체에 따라서는 18~24일 범위에 있는것도 있으므로 개체의 발정에 관한 기록을 철저히 하여 다음 발정기를 넘기지 말고 종부를 시켜야 한다.

번식우는 송아지때부터 적절한 사양관리를 하여 체중이 250kg 이상인 14~16개월령에 임신을 시켜 약24개월령에 분만을 시킨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발정이 재귀되게 하며 발정이 나타나면 확실하게 임신을 시켜야 한다.

이러한 암소의 번식능력은 유전능력 뿐만아니라 대기온도와 환경조건 및 영양상태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축산시험장에서 한우를 공시하여 조사 연구한 바에 따르면 초발정이 적정사양표준에서는 평균 13.5개월령이었지만 저영양으로 사양했을때는 평균15.5개월로 약2개월이나 늦어졌다.

한우는 근년에 와서 지속적인 개량으로 육성한소의 성장이나 발육이 현저하게 좋아지고 있으며 성성속도 빨라짐으로써 초종부 월령도 크게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가 발육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종부를 하여 수태를 시켰을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있기 때문에 소의 상태를 관찰하여 적절한 상태에서 수정을 시켜야 한다.

- ① 난자와 정자의 미성숙으로 기형률이 높아 수정률이 낮을 수 있다
- ② 어미소의 체구가 작아 유산이나 난산율이 높다.
- ③ 송아지의 체중이 적고 어미소의 비유량이 적어 송아지 발육이 불량하다.
- ④ 어미소의 산후 회복이 늦고, 발정재귀가 늦어져 분만간격이 길어진다.
- ⑤ 불규칙한 발정으로 수태율이 저하된다.

#### ※ 수정적기 판단의 예

2000.4.1일 아침 6시에 발정을 발견하였다면 언제 수정을 시켜야 할까?

발정을 아침 6시에 발견하였으므로 발정개시는 몇시간 전인 0~1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난자가 발정개시부터 30시간만에 배란한다고 볼 때 수정적기는 발정개시 후 18시간이 지난 4.1일 오후6시(18시)이며 이때 수정을 시켜야 건강한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할수 있을 것이다.

## 제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준비를 위한 사양관리

지난호(3월호)에 이어 2001년 제5회 전국한우능력 평가대회 준비를 위한 일정과 사양관리 내용을 연재하여 평가대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1. 입식4개월째의 사양관리

- 농후사료 급여량 : 육성우 사료 - 3kg정도 급여(배합사료는 사료회사 사양관리 기준함)
- 조사료 급여량 : 건초, 알팔파, 큐브, 볏짚, 옥수수사일리지 등 3kg~4kg  
(단, 생초나 사일리지는 건초의 5~6배)

7월과 8월은 소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소는 추위에 견디는 힘은 강하지만 더위에는 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가 먹는 양도 더위에 따라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축(특히 소)에 있어서 최고의 생산성을 얻는 온도를 적온대(적온범위)라고 하는데 비육우의 경우는 15°C~25°C가 적온 범위입니다. 이 범위이상(25°C이상)에서는 사료섭취량, 사료효율등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더위를 막아주는 대책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잦은 비로 인하여 모기나 파리는 우사로 모여들고 우사의 습도가 너무 높아져서 소의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런때는 선풍기를 돌려서라도 강제로 통풍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초속 1m의 바람은 기온을 1°C 낮출수가 있습니다.

『표1』 환경온도와 육용우의 사료섭취량의 증감

환경온도	사료섭취량의 변화(사양표준의 영양분 요구량에 대한 비율 %)
35°C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습도, 야간의 고온(열대야), 일사 : 현저한 채식량 감소</li> <li>· 포식 급여의 소 : 10~25% 감소</li> <li>· 체중 현상유지의 제한급여 소 : 5~20% 감소</li> </ul>
25 ~ 35°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식량 : 3 10% 감소</li> </ul>
15 ~ 25°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양표준의 양분요구량 섭취(표준 적온대 임)</li> </ul>
5 ~ 15°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식량 : 2 5% 증가</li> </ul>
-5 ~ 5°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식량 : 3~8% 증가</li> </ul>
-15 ~ -5°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식량 : 5~10% 증가</li> </ul>
15°C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식량 : 8~25% 증가</li> <li>· 극한추위(-25°C이하), 바람, 눈 등에서는 일시적으로 채식량 감소</li> <li>· 조사료만으로는 채식량 증가를 달성할수 없다.</li> </ul>

주) NCR사양표준(1984)



□ 우사내의 온도와 사료섭취량

『그림 1』은 우사내 온도와 농후사료 섭취량의 관계를 하나의 실증시험 장소에 대하여 7월1일 ~7월31일(1개월)까지 나타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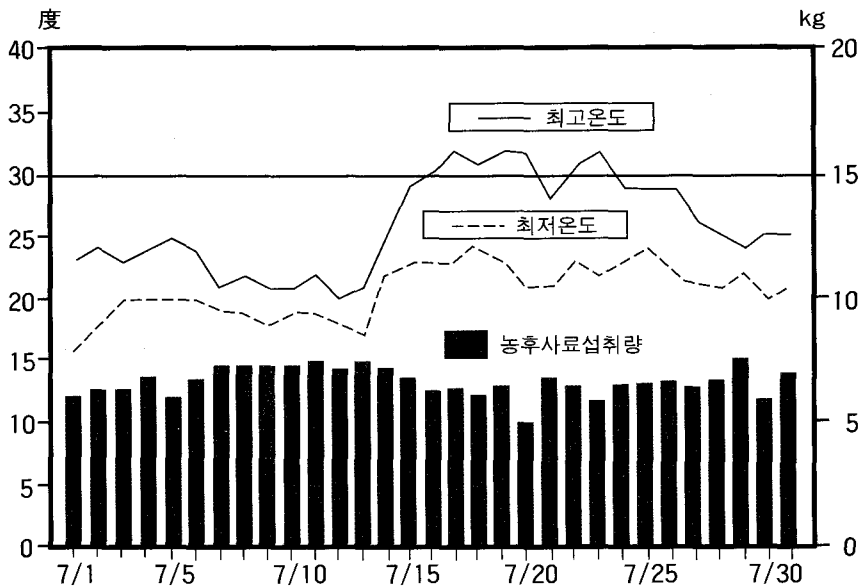
장마가 개고 기온이 떨어질 때 최고기온이 25°C이었으며 이때 소의 체중은 390~420kg정도 이었습니다.(현재 우리 시험우는 200kg내외)

7월7일~14일의 농후사료 섭취량은 7.2~7.5kg간에서 비교적 안정되게 섭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5°C를 넘게되는 7월15일 이후의 농후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때 매일 기온에 따라서 사료섭취량의 안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더위에 대처하여 규정량 이상의 사료섭취량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확실한 방서대책을 실시하여 우사자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는 여름에는 더운 한낮을 피하여 아침과 저녁에 많은 사료를 섭취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신선한 사료를 급여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매우 좋은 효과를 얻을수가 있습니다.

『그림 1』 우사내의 온도와 농후사료 섭취량



◎ 구체적인 방서대책

- 통풍과 환기의 개선 : 보통 통풍 1m당 체감온도가 1°C떨어지기 때문에 풍속,환기를 개선함으로써 온도계에 나타난 온도 이하를 소가 느끼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우사의 문과 창을 모두 개방합니다.
  - 환기통이나 통풍기(선풍기)등을 설치합니다.
  - 송풍관을 설치 합니다.

- 우사내의 온도는 옥상에서의 복사열에 의하여 올라가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지붕위에 흰색 페인트의 도색등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 습도의 개선 : 습도가 높아지면 소의 몸에서 발생하는 열이 감소하여 소의 체온은 상승하게 됩니다. 같은 온도에서 습도가 높게되면 불쾌지수가 높아지게 되므로 습도를 떨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통풍 및 환기대책을 세웁니다.
  - 깔짚의 교환회수를 늘려서 깔짚에서의 수분발산을 적게 합니다.
  - 우사 주변의 웅덩이나 습지 등을 없애고 잡초제거등 파리나 모기등의 위생해충 구제를 실시합니다.

## 2. 입식 5개월째의 사양관리

- 농후사료 급여량 : 육성우 사료 또는 비육전기사료 3~3.5kg
- 조사료 급여량 : 헤이큐브나 조사료 건조 1kg이상, 볏짚 3kg (예 : 건조단위 4kg이상 급여)  
사일리지도 건조의 4~5배 급여합니다.

사료의 급여는 아침6시 이전에 종 일찍 급여하여 소가 덥기전에 사료를 다 먹어치울 수 있도록 합니다.

오후에는 날씨가 더우니 가능하면 저녁 6시경 서늘할 때 급여를 합니다. 소가 농후사료를 3~3.5kg이상 먹어치울 경우에는 보충사료로 조사료를 더 많이 급여해야 합니다.

어린시기에 조사료를 충분히 공급하여 소의 내장과 뼈가 튼튼해지면 비육후기에 체중이 많이 나갈 때 농후사료를 많이 먹여도 배탈이나 위장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배합사료 가격도 비싼데 많이 급여하여 체중이 300kg도 나가지 않는 소가 비육한 소처럼 털이 반 들반들하고 엉덩이 쪽이나 목지느러미가 늘어져 있으면 곤란합니다.

조금은 마른듯하게 길러주시는 것이 현명한 사육입니다. 그렇다고 사료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사료는 배가 부르도록 충분히 급여하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한 건조, 사료작물 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 ◎ 조사료의 급여는 증체의 흐트러짐(기복)을 적게 합니다.

비육의 요점은 비육전기의 조사료 급여입니다. 비육전기에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함으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이점이 생깁니다.

- 증체의 흐트러짐이 대단히 적습니다.
- 체형이 조사료를 적게 급여한것에 비하여 커집니다.
- 도살하였을 때 내장 등의 장애가 없이 소가 아주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 ◎ 조사료를 급여해도 지방의 황색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육농가나 지육시장 일부에서는 조사료를 급여하면 지방의 황색화가 일어나서 고기의 질이 나빠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역용우로 사용할 때 풀을 주로 급여할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청초를 8,000kg이상 급여한 경우에는 지방이 황색이 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급여할 필요는 없다. 조사료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내장장애가 나타나는데 일본에서도 1988년에 도축된 소 가운데 46%가 무엇인가 내장에 장애가 있었으며 그 일부는 폐기처분 했으며 이러한 소들 가운데는 내장 등의 장애로 육질이 나빠진 소도 있었다.

**한우고급육생산 우수축출하포상금 상향조정**

1등급 출현율이 40%까지 계속 지급할 계획임

포상금 : A1+(A1)등급 120천원 → 150천원,

B1+(B1)등급 80천원 → 100천원으로 상향조정됨

□ 한우 1등급 출현율

구 분	'93	'94	'95	'96	'97	'98	'99	'00.1/4
전 체	10.7	12.7	12.8	18.8	18.4	15.3	18.8	23.2
암 소	21.3	27.5	25.4	41.1	30.3	24.7	27.6	35.7
비 거 세	6.6	5.6	4.3	4.3	2.6	2.0	1.5	1.6
거 세	75.7	52.2	58.1	65.5	60.7	50.5	52.6	50.5
거 세 출현율	0.8	1.1	1.4	2.3	3.9	8.6	10.5	9.3

□ 위 표에서 알수 있듯이 한우고급육 생산 소재는 암소와 수소의 거세우이다.

- 암소위주의 비육을 통한 고급육 생산은 번식기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암소비육과 거세비육의 소득격차는 암소를 통한 고급육생산이 늘게되어 한우번식기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 고급육생산과 번식기반유지의 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세우에 의한 고급육 생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가입기간 연장

농림부에서는 최근 구제역 발생에 따라 안정제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 관계로 구제역 발생이 다소 진정된 후 안정제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2000년 송아지 생산안정제 청약기간을 2000.1~6월까지로 1개월 연장하였다.

□ 기증저 발생에 따른 방역 및 예방주의

경기도 및 인천시에서 병성감정 의뢰한 소 가검물 검사결과 기증저로 진단되어 발생농가의 폐사축 및 오염된 사료,분뇨 등 오염원에 대하여는 가능한 소각처리하고 소독을 철저히하여 기증저 전파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할것.

기증저로 의심되는 가축전염병 발생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발생농가 및 인접지역 등지의 사육중인 소에서 유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폐니실린계 항생제로 조기치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주의를 요함.